

이름의 의미

토기장이교회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자신을 진흙으로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토기장이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빛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쓰임을 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사 64:8)

비전

토기장이교회의 비전은 한 영혼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사역하는 예수공동체, 성령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짚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햄버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먹어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하면 된다.
그러나 먹어봤는지 묻지도 않은 채,
먹어보지 않은 이의 화려한 말과 모습을 보고
맛있겠다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한다. "먹어 보셨나요?"

햄버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먹어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하면 된다.
그러나 먹어봤는지 묻지도 않은 채,
먹어보지 않은 이의 화려한 말과 모습을 보고
'맛있겠다'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한다.
"먹어 보셨나요?"

그렇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인 완전예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 세상 법과는 뭔가 다른 제10계명

다른 계명들은 대체로 짤막하고, 따라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분명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에 반하여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들^(두 번째) 중에서 가장 깁니다.

게다가 10계명은 7계명이나 8계명의 반복이나 확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스스로 어떤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보다는

다른 계명을 설명하는 부록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10계명은 매우 독특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야말로 십계명이 다른 일반적인 국가법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명의 독특성은 이것이 [마음의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계명이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로 마음보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주로 “나쁜 행위”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남의 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큰 죄라고는 잘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만있어도 떠오르는 생각을 나보고 어찌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이런 생각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거룩해 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모든 악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탐심은 우리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 제일 마지막에서 탐심에 대한 자세하고 강력한 경고를 남겨 두셨습니다.

| 탐심: 마음으로 짓는 죄

놀랍게도 10계명은 [마음에 관한 명령]입니다. 113문은 정확하게 이 계명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적인 형벌과 명백히 다릅니다. 그 누가 마음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 법이 그런 명령을 하려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증거를 통해 찾아내야 하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소위 도덕과도 구분됩니다. “정직하고 바른 품성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법에 비해서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강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법이라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 엄하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명령을 툭 던지시기만 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 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잠언 24:12)”

많은 사람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도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따르면 탐심의 대상이 여러 개로 나열되어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어떤 소유욕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속한 것,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리문답의 해설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금한 것은
마음에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소유에 대해서 탐을 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전혀 탐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남의 아내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10계명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내용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113문답은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워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까? 정말로 미워하십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여” 죄를 미워하십니까?
비록 우리는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있는 힘을 다해서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는 것은 그 죄가 주는 유혹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따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아하고 사랑할 대상은 [정의]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의와 불공평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약자와 소외된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난을 나태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책임으로만 돌리려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설교단에서 의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설교자조차도 마음을 다하여 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요리문답에 따르면 그렇게 된 까닭은
10계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도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상) by 이성호】

7:1-8:28 기드온의 승리와 패배

본문의 위치.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 열두 사사(여섯 명의 대사사와 여섯 명의 소사사), 반(反)사사(anti-judge)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대사사며, 이제 여호와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차례다. 우리는 6장에서 기드온이 부름받아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여호와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오(7:1-25) 이스라엘이 이 구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8:1-28). 사사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숭배가 반복적이고 하향적으로 되풀이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먼 자들이 되어 가고 있다.

큰 그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주의 깊게 행동하 신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던 우상들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된다.

II. 사사들(3:7-16:31)

B. 제2군: 세 명의 큰 사사들(6:1-16:31)

1. 기드온(6:1-8:35, 큰 사사)

a. 기드온이 부름 받다(6:1-40)

- (1) 미디안의 억압(6:1-6)
- (2) 주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다(6:7-10)
- (3) 기드온이 부름 받다(6:11-24)
- (4)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수다(6:25-32)
- (5) 기드온의 양털(6:33-40)

b. 미디안이 패배하다(7:1-25)

- (1) 삼백 명을 골라내다(7:1-8)
- (2) 주님이 꿈으로 기드온을 격려하시다(7:9-14)
- (3) 미디안의 전투(7:15-25)

c. 이스라엘이 타락하다(8:1-35)

- (1) 에브라임의 불평(8:1-3)
- (2) 숙곳과 브누엘의 배척(8:4-9)
- (3) 세바와 살문나의 생포(8:10-12)
- (4) 숙곳과 브누엘의 징벌(8:13-17)
- (5) 세바와 살문나의 처형(8:18-21)
- (6)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8:22-23)
- (7) 기드온의 에봇과 땅의 안식(8:24-28)
- (8) 에필로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되돌아가다(8:29-35)

삿7:1-8. 300명으로 수를 줄이시는 여호와. 7:1-8은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선 3만 2천 명 중 300명 만을 남기시는 이야기다. 흔히 이 남은 300명을 기드온의 “삼백 용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본문은 어디에서도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는다(여호와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기는 했다). 이 300명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규모였다. 이 사건을 정예 용사 300명을 선발한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이해는 본문의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남은 300명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바람직한 특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규모의 군대를 자랑하는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매우 작은 수라는 점이 중요하다. 300명은 기드온이 6:34-35에서 불러 모았던 군사의 1퍼센트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조금 과하게도 느껴질 만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본문은 “삼백 용사”가 아니라 “삼백 여중이 떠중이”의 이야기다. 이 표현이 너무 과하면 그냥 “삼백 명의 사람들” 이야기라고 해도 좋다. 어찌 되었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자, 기드온과 그를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이 야영하고 있는 모레산 앞 골짜기 바로 남쪽에 위치한 하룻(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떨림’ 이다!) 샘 곁에 진치고 있었다. 전쟁에 관한 보통의 역사 기록에 서도 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음 장면이 전장에서 종종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영적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나님은 이제 곧 군대를 대폭 감축해 아주 독특한 전투 계획을 실행할 시 예정이었다. 이 시점에서의 정황으로는 여호와와의 군대가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열세를 무릅쓰고 싸워야 했다. 그 수치는 이스라엘 진영에 32,000명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7장 3절과, 적의 숫자가 대략 135,000명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는 8장 10절로부터 얻어진다. 어떤 강점(우월한 병기나 유리한 위치 등)이 주어진다면 그런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기드온은 그런 강점들 가운데 어떤 것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오히려 미디안 족속이 우월한 병기와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병기도 거의 없는 데다 뚜렷한 전략도 없었던 것이다.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 개역개정판 1절에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문은 문자적으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다. 2절의 “너를 따르는 백성”도 히브리어로는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다. 기드온을 “따른다”는 표현과 기드온과 “함께한다”는 표현의 차이는 8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중요해진다. 개역개정판 8:5의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표현은 한글로는 7:1, 2의 표현과 똑같이 보이지만,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발에 (있는) 백성” 정도가 된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룻. 기드온은 ‘하룻’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이 이름은 ‘떨림/두려움’이라는 뜻을 지녔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여든 사람 중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3절), 두려워 ‘떠는 자’를 뜻하는 단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샘에서 돌려 보낸다. 아마도 이 샘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을 수도 있다. 또한 샘의 이름은 기드온의 심정을 잘 표현한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군대에 대한 규례를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 중 두려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한다(신 20:8). 주님께서 하시든 전쟁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성전(聖殿)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이다. Expository + Commentary

²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³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던라

6장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미디안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아직은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본문들에 따르면 13만 5천 명이 미디안 연합군의 크기였다(참조. 8:10). 이러한 숫자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차적이면서 상식적인 방법은 그보다 큰 수의 군대를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마치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대적 이 철 병거로 대표되는 뛰어난 무기를 가졌던 문제를 이스라엘에게 더 뛰어난 무기를 주셔서 해결하지 않으셨던 것과 비슷하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백성을 모았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2절). 하나님은 규모가 큰 군대의 위협을 더 큰 규모의 군대를 통해 극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숫자의 문제요 함정이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5,000명 VS 10,000명.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 보내니 32,000명 중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군대의 규모가 1/3로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적들이 135,000명이니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적군 14명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낙타 부대를 앞세운 군대를 상대로 말이다. Expository + Commentary

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는 1만 명도 여전히 많게 보신다.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들을 친히 추리시겠다고며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신다. 이때 사람들을 추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신다. “내가 …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이다. 사람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누가 남고 누가 돌아갈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 목적은 분명하다.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핏을 먹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핏을 먹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을 먹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백성들이 물가에 내려가자 여호와와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기준으로 그들을 구별하라고 하신다(5절).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기대나 선입견과 달리 매우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5절에 의하면 “개가 핏을 먹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핏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별해야 했다.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기록한 6절은 백성들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로 구별한다. 여호와와 선택을 기록한 7절은 “물을 핏을 먹은 삼백 명”과 “남은 백성”을 구별한다. 각 절에 나오는 구별 기준에서 명확한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5절과 6절에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구별되는 사람들은 각각 “개가 핏을 먹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핏을 먹는 자”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을 먹는 자”인데, 이 두 표현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세는 생각하기 어렵거나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 과정 가운데 남게 된 300명에게서 그들을 남길 만한 어떤 장점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즉, 그들이 물을 마신 자세 가운데 무엇인가 바람직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세 차례의 구별을 본문에만 충실히 집중하면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구별 방식의 모호함과 혼란스러움은 구별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여호와와 선택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문학적 효과를 만든다. 이런 본문의 모호함에 비해 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남을 사람과 보낼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호와와의 판단이었다. 둘째, 이러한 시험을 통해 사람들을 구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 수를 충분히 줄여 오직 여호와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 했음을 명확히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300명을 추리되 용맹한 사람을 추리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후에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추리는 것이 여호와와의 목적이었다. 그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수를 줄여야 했다. 6절의 상황과 반대로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300명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을 먹었다면 아마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남기셨을 것이다. 남긴 사람들의 용맹함이나 특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평범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할 것이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부 주석자들은 하나님의 시험이 전반적인 전쟁 준비 태세나 조심성이 좀 더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이 그런 경우인 것 같지는 않다. 그 시험의 판단 기준은 분명 임의적인 것으로, 단순히 군대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이었을 것이다.^{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⁷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훔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⁸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추출하거나 정련하는 과정을 거친 후 불과 3백 명의 군인만 기드온과 함께 남고, 이 수는 6-8절에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다. 이는 병력을 무려 99퍼센트나 줄인 규모다! 8장에 이르면 미디안 사람은 적어도 13만 5천 명이나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450대 1의 비율로 불리하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7절), 말하자면, 군대 진영에 있는 자기 “장막”(8절)으로 돌아간다. 나중에, 주님이 3백 명을 이용해서 미디안을 무찌른 뒤에는 나머지 군인들이 나와서 생존자를 추격하게 될 것이다.^{ESV}

| 아래의 글을 읽고 나누어보세요.

²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삿 7:2, 새번역)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적용할 때, 흔히 “삼백 명”을 3천 명, 3만 명으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종자 모임”의 수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도 용사 300명이 모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교인이 열 배, 백 배로 많아질 것이라고 외치면서 말이다. 그러나 사사기 본문의 메시지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관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300은 더 커지기 위한 수가 아니라 큰 규모를 줄이고 줄여 만든 수다. 기드온 이야기는 규모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 버리라고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며 큰 규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자랑을 하게 만든다.^{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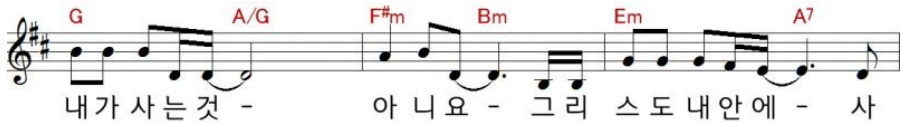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Anointing
Music

정성권



| 질문 |

43 누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까?(10:25)

44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10:25)

| 답 |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성경에 능통한 학자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꾀투리를 잡으려고,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교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질문을 했다(18:18. 참고, 마 22:35).^{NIV}

이르되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교사'(일반적으로 혹은 특히), 박사, 주인 선생(요 3:10; 13:13).^{픽트리성경}

| 질문 |

45 그가 예수님께 이른 것은?(10:25)

46 예수님께서서 이르신 것은?(10:26)

| 답 |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한 율법 교사의 질문은 유대인들이 흔히 던지던 신학적 질문이었으며, 랍비들에게 율법 및 다른 것으로 도전하는 것은 고대 랍비들의 토론에서 흔한 일이었다.^{IVP}

율법교사는 오직 “자기를 옳게” 보이기만을 원했다(29절).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ESV}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랴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에게 구약은 믿음과 실천의 결정적이고 정확한 기준이다(참조, 18:19~20).^{ESV}

| 질문 |

47 그가 대답하여 이르른 것은?(10:27)

| 답 |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데(마 22:35~40; 막 12:28~31), 이 말은 예수님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합치신 것이다(신 6:5; 레 19:18). 네 가지 차원의 사랑이든(여기와 막 12:30에 나와 있듯이 마음, 목숨, 힘, 뜻),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든(신 6:5; 마 22:37; 막 12:33), 중요한 것은 전적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NV}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수반한다. 공관복음서에는 모두 마음(감정, 의지, 가장 깊은 확신, 목숨(ESV. 영혼. 한 사람의 존재의 비물질적인 부분), 뜻(이성. 그러나 이 용어는 신 6:5에는 없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22:37)에만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전 존재의 전적 헌신을 가리키는 힘(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마 22:37~38 및 막 12:28~31).^{ESV}

| 질문 |

48 예수님께서서 이르신 것은?(10:28)

| 답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대답이 옳도다. 율법교사의 대답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를”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그가 이 명령들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곧 보여 주실 것이다(막 10:19).^{ESV}

율법의 몇몇 본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생명’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많은 후대의 유대 해석자들은 그것을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했다. 예수님 역시 그 원리를 영생에 적용시키신다(참고. 25절).^{IVP}

주일 예배

신앙고백

찬양

공동기도

1.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되도록
2. 「아메리카」 포클랜드 제도를 그리스도께로!

주기도

축복의 노래

공동체 소식

말씀

사사기 7:1-8

성찬

축도

성도의 교제

예배 안내

6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찬양인도	말씀읽기	성찬위원
	소그룹 주일 예배		
07			
14	김상욱	김은우	유경수 김정훈
21	박엄지	염이엘	최기순 장진영
28	정인용	전태한	김상욱 엄승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오전 11:00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는 성도들의 신앙 인격과 삶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고 동시에 소명 받은 예수의 제자로 각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진흙과정 | 성경을 여는 문

토기과정 | 복음서 · 서신서 · 성경연구

교회 소개

토기장이교회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 신학교를 운영하는 초교파 교회들과 단체와 학교들입니다.

kaicam.org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사역자 | 토기장이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섬기는 사람들 | 장창규 목사 · 정인용 목사

11354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5 대흥프라자 4층

potter.or.kr

헌금계좌: 농협 351-0178-6172-23 (토기장이교회)